

천주공경가의 진실성

- 天主恭敬歌는 果然 眞品이요, 名品이다. -
천주 공경 가 과연 진품 명품

2018. 6. 8. 사제성화의 날, 김학렬 若望 신부.
약 망

1. 천주공경가의 출전을 보면, 이벽이 지은 천주공경가는 근래에 발견된 <만천유고>에 실려 전하고 있고, 또 천주가사로서 구전전승을 통해 오랫동안 입으로 불리어져 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1-1 만천유고에 전하는 天主恭敬歌¹⁾는 李檠이 지은 것으로, <蔓川遺稿>라는 책 속에 들어 있으며, 이는 송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에 附記된 기록은; 天主恭敬歌^{부기} 司 己亥年 臘月 於走魚寺 李曠菴(菴) 藥 作哥+司²⁾ 로서 만천유고본 필사자의 한문 이해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천주공경가는 일종의 포교가사로서, 4.4조 4音步格으로 17句밖에 안 되는 짧은 歌辭^{가사}이다 (신학전망 23호, p.159 에서는 4.4조 1음보로 33구이다.)³⁾

1-2 천주공경가는 口傳 傳承으로도 이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발견되는 구전은 3가지이다.
구전 전승

1-2-1 최필선의 논문 속에, 김해의 백제순 비리시다(68세)의 천주가사가 전해지고 있다.⁴⁾

1) 金眞召, 天主歌辭의 研究, <교회사연구 제 3집>, 1981 한국천주교회사연구소, p.261에서, 천주가사가 처음 소개된 것은 金良善 교수의 벽위편 해설(주7/ 신동아 1969년 1월호 부록 한국의 고전 百選)에서, 십계명가와 천주공경가 등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고, 그 후 하성래는 김교수에게서 만천유고를 찾아 발표하였다.(한국언어문학 제 8집 1971; 신학 전망 21호, 23호, 1973년).; 송실대본 만천유고의 目錄 중에 雜稿 에서는 농부가와 경세가와 함께 歌로 표기되고 있으나, 실제 본문에서는 農夫詞 이외에는 모두 歌(哥+欠)가 아니라 哥+司(=없는 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아마도 목록의 歌자를 보면서 司의 古字인 사(瓜부 13획)자와 辭자에 대하여 필사자가 혼동을 일으킨 듯하다. 그러므로 목록을 쓴 사람과 본문을 쓴 필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필사자는 이벽 성조의 정확한 이름이나 남인계의 호(순암, 광암, 녹암, 사암, 손암, 척암)도 잘 모르는 등, 필사자의 한문이해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2) 檠을 藥으로, 菴을 菴으로 표기하는 등으로 보아, 附記는 후에 가필된 것이지, 작자(이벽)의 표기가 아니다. : 김진소, 위의글 p.265에서, 천주가사의 親著性(作家)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 오늘날 친저성 규명은 작품연대 만큼이나 어렵다. 가사의 전승자들은 신심에 관심이 있지, 저자에는 무관심하다. 그 이유는 박해시대였기에 작자 이름을 은닉했거나, 최도마 신부의 경우는 겸손 때문이다. 저자와 연대표기에 신경을 쓴 것은 20세기 초부터이다. - 작가는 당시 교회에 잘 알려진 공적 인물이어서, 또 쑥스러워서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저자와 연대보다는 가사 안의 지혜와 靈性에 관심이 컸다. (주 13/ 경향잡지 창간(1906)부터 1940년까지 발표된 129편중 27편만 작가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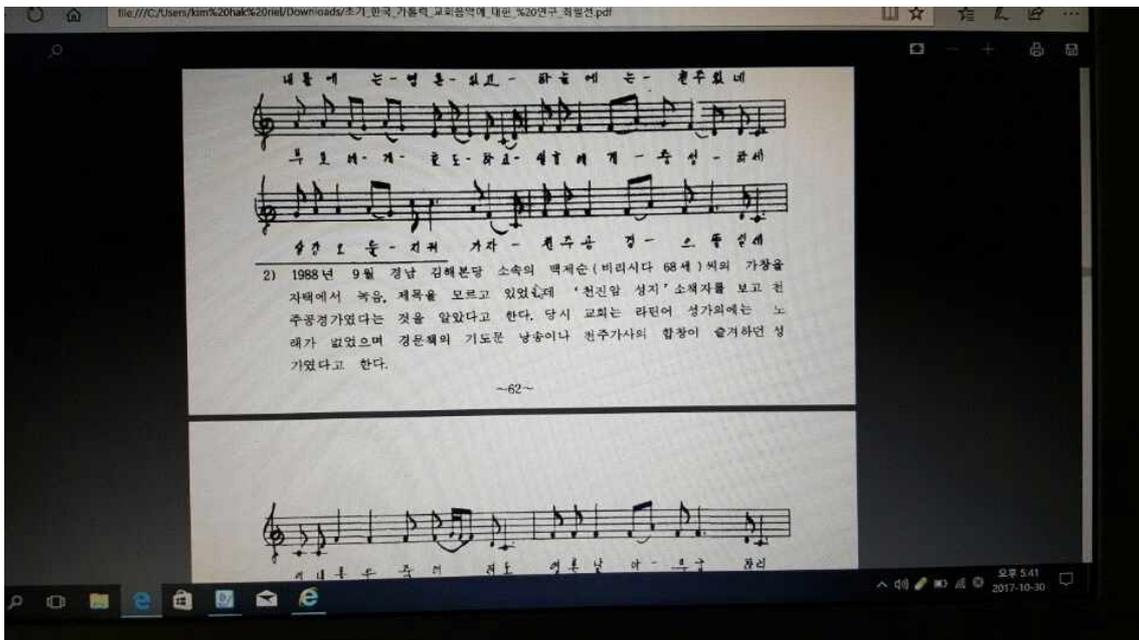
3) 河聲來, 天主歌辭 研究, 1985 성 황석두루가 서원. : 하성래(광주 사례지오 고등학교 재직 중), 전약권의 십계명가와 이벽의 천주공경가 II, <신학전망 23호> 1973, p. 156-에서도 먼저 발표하였다.

4) 崔必善, 初期韓國 가톨릭 教會音樂에 대한 研究, -경상도 내의 구전 천주가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趙善宇), 1989. 12. 동아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 필 선 초기 한국 교회 음악 연구 조 선 우

천주가사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차인현과 김진소 신부가 수집해왔는데, 최필선은 경상도 지역에서 백제순 비리시다(68세)를 1988년 9월에, 김해시 동상동 648에서 만나, 천주공경가와 천주십계, 영성체송을 채집하여 논문으로 발표하였다.(3쪽).

천주가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779년 (천진암)주어사강학⁵⁾ 이후인데, 천주공경가와 십계명가 2편이 그것이다. 이 중 영혼불멸, 불사금지, 천당지옥설의 시비에 대해 변(호)교론적 내용을 띠고 있는 천주공경가는 저자(최필선)에 의해 채집되었다. 그리고 그 선율이 언제부터 불러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천주공경가를 노래한 백제순씨(68세)의 증언으로 미루어, **1850년대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백제순씨가 10세 경에(1920생?-1931년) 장년층 부녀자들로 부터 배웠다고 하는데, 그 장년층 부녀자들은 또 그들이 어릴 적에 (1890년 경, 그 당시의) 어른들로부터(1850년 경) 배운 것이라 하므로, 늦어도 1850년대로 보여 진다.(31쪽).

당시 김해본당 소속의 백제순(비리시다 68세)씨의 자택에서 가창한 것을 최필선이 녹음하고 채보하였는데, 백제순은 (천주공경가의) 제목을 모르고 있었으나, 천진암성지의 '소재자'를 보고 '천주공경가'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당시 교회에 라틴어 성가 이외에는 노래가 없었으므로, 경문책에서 기도문 낭송이나 천주가사의 합창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고 한다.(62-64 쪽/사진첨부).



1-2-2 강영애 데레사 교수의 2012년 글에, 또 다른 2편의 '천주공경가'가 채록되었다.⁶⁾

5) 천진암강학의 근거에 대해, 천진암성지> 역사자료실> 20번에서 '한국천주교회의 뿌리'를 참고하라. http://www.chonjinam.org/client/form/viw.asp?p_idx=143&cpage=6&Search_code=0&Search_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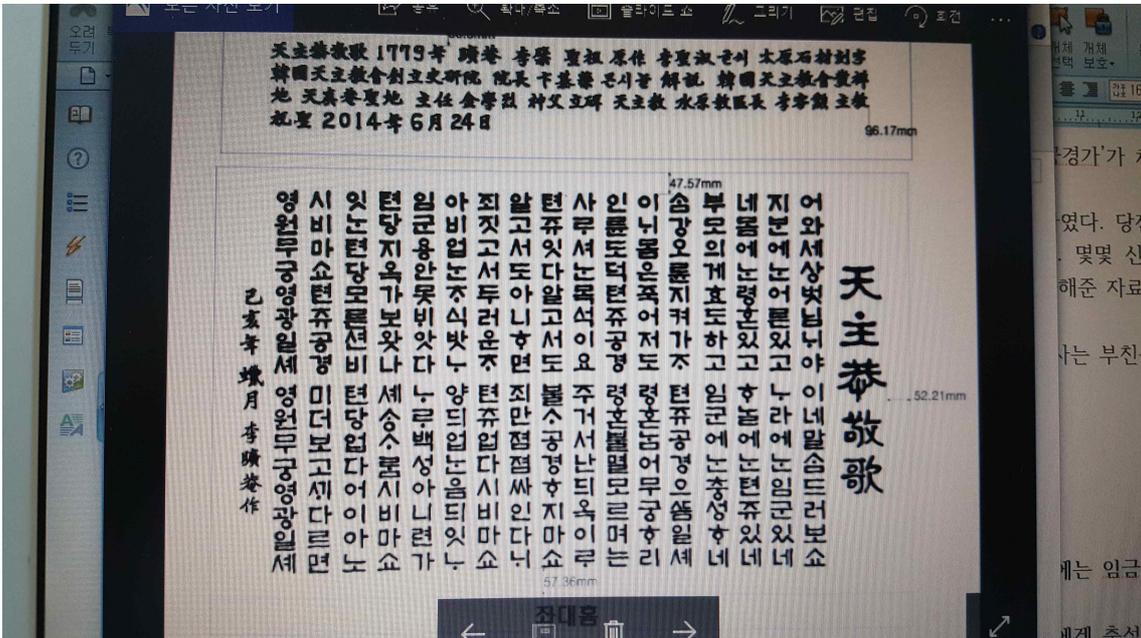
6) 강영애, 노래로 불러진 천주가사의 음악적 특징, <국악원 논문집 제26집>, 2012 국립국악원.; 이후 가톨릭 신문 2014-11-23 [제2920호, 14면]기사에서 강영애는, 「만천유고」는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자 이승훈(李承薰, 1756~1801)과 그의 동료들이 남긴 글들을 편집한 책으로 학계에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윤민구 신부는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흔적을 밝혀내어 위작임을 주장했다. 일제강점기 때의 역

1), 석우동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서 태어났으며, 본래 불교 신자였다. 당진군 고대면 향곡리로 출가해서 영세를 받았으며, 향곡리 공소 여회장을 역임하였다. 몇몇 신자들에게 천주가사를 가르쳐주었다고 한다.(104쪽, 주29에서, 내포 교회사 연구소의 김정환(요한) 신부님이 제공해준 자료 참고).⁷⁾

2). 조중환은 충남 서산의 독실한 구교집안에서 태어났고, 천주가사는 부친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104쪽).⁸⁾

2. 천주공경가의 원문과 현대문.

2-1 천진암성지에서는 2014년에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 기념으로, 篆書체로 된 원문을 천진암박물관 앞에 비문으로 조각하여 세웠다.(사진 참조).



2-2 현대어로 번역된 본문은 아래와 같다.

사왜곡은 정확한 사료검증과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진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7)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것을, 2009년 8월 27일 내포교회사연구소에서 MP3로 다시 녹음하였다. cf.내포교회의 녹음자료와 문서자료를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하라. <http://www.djhistory.org/>

8) 강영애는 2017.10.30.에 김학렬에게 전하기를, '제가 조중환 가창자의 자료를 건네받은 분은 김영수(천주가사자료집 엮음)선생인데, 자료제공자는 유한영 신부님이 아시는 신자분이시랍니다.'고 한다.

- 1.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 2.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
- 3.네몸에는 영혼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 4.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 5.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 6.이내몸은 죽어져도 영혼남아 무궁하리
- 7.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며는 / 8.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 9.천주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마소 / 10.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점점 쌓인다네
- 11.죄짓고서 두려운자 천주없다 시비마소 / 12.아비없는 자식봤나 양지없는 음지있나
- 13.임금용안 못보았다 나라백성 아니런가 / 14.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사람 시비마소
- 15.있는천당 모른선비 천당없다 어이아노 / 16.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 17.영원무궁 영광일세.

3. 천주공경가의 내용과 출처.

3-1 천주공경가는 4.4조 4음보격으로 17구밖에 안되는 짧은 歌辭이다(전망 159에서는 4.4조 1음보로 33구). 그러나 西敎 신봉자의 기록으로서, 한국천주교의 창립자 이벽의 신앙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문헌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벽의 나이 26세 때(1754-1779) 지은 것으로, 南人 학자들 사이에 신앙이 얼마나 침투하였는지 살필 수 있다.⁹⁾ 하성래는 천주공경가를 크게 3단락으로 나누는데,

3-1-1 일 단락은 ‘어화세상 벗님네야부터 -천주공경 으뜸일세’까지로서, 천주공경이 으뜸임을 호소조로 노래한다. 이에 반하여 12-15년 후, 거상중의 이기경의 상소(cf. 김시준역 벽위편 150) 때문에 귀양을 가서 작성한 이기경의 尋眞曲에서는, ‘길가는 아흐 | 더라 --이느 | 말슴 듯고가소’.로 대꾸하였다.

1절.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어화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 로 시작하는 이벽의 천주공경가는 <이벽전>에 표현된 대로, ‘수시 이성호 종학도와 현우현사(賢友賢士) 이씨 정씨네와 면학하시더라’¹⁰⁾ 하던 중에, 노래로 지어 부른 단체가였다. 삼강오륜에서 우선시하는 수직관계의 君臣, 父子, 夫婦의

9) 하성래, 천주가사 연구, p.164의 ii) 형식 및 內容考 참조.

10) 이벽전, 9b.

관계에 앞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평적인 벗의 관계로 (朋友) 보며 중요시하였기에, 노랫말의 제일 앞에 놓았다. 이에 대하여 이기경은 벽위편에서, ‘저들은 父子, 君臣, 夫婦의 인륜을 중히 여기지 않고, 다만 友誼를 존송하니’ 하며, 순암 안정복이 타일러 고치려 하던 천진암강학 관련자들이 벗을 첫 자리에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¹¹⁾

이같이 ‘어화세상 벗님네야’나 ‘어화청춘 소년네야’ 등은 조선후기 잡가, 단가, 민요 등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최양업 신부의 ‘사향가’도 이같이 시작되고 있어, 천주가사가 우리의 문화적 토양에서 창작되었음을 알려준다.¹²⁾

2절. 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

김영수는 각주 4에서, ‘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의 내용이 천주실의에 나오는 ‘家止有一長 國止有一君’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김학렬)가 살펴본 바로는, 가 지 유 일 장 국 지 유 일 군 천주실의에도 나오는 이 문단의 원천은 라명견(루지에리) 신부의 천주성교실록이다.¹³⁾ 또한 만천유고 중에 나오는 십계명가에서 8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아도, 강학에 참가한 사람들이 천주성교실록에서 8계명 무참방시비를 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문단 역시 천주실의에 앞서 저작된 천주성교실록을 보고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⁴⁾

3절. 네몸에는 영혼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¹⁵⁾

4절.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네

11) 김시준역 벽위편, 안순암의 천학문답, p. 34.; ‘어와 벗님네야 집구경 가자셔라’(李滉, 道德歌)는(cf. 이대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연구, 2014 대전 가톨릭대, p. 247 각주 71.)는 마태오 리치의 [교우론]이 나오기 이전 시대의 것이나, 천주공경가 작성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본다.: 최양업 신부, 천당 산양가(사향가), 오춘백씨(오배드루) 소장본에서, ‘어화세상 벗님네야 우리낙토 초조가자, 지당을 가즈히 아담원조 님 | 쳐넛고, 복지로 가즈히 믹스(=모세)선인 뭇드렸고’ 하였고, 이외에도 ‘어화 벗님네야 우리고국(고향) 차자가세’는 p. 27, 28, 29, 30, 40. 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꾸로 이기경은 심진곡에서, ‘길가는 아해들아 -이내말씀 듣고가소’라 하였다.

12) 김영수, 校註 천주가사, 2005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소, p.14 각주 3.

13) 라명견의 천주성교실록, 解釋世人冒(모)認天主章, p. 6b에, 天主最靈, 獨有一尊, 掌握宇內事物. 譬如一人止有一首, 一家止有一長, 一國止有一君. 假如有二, 則國家亂矣. 故曰: 『天主獨尊』. 其餘天神, 亦不得配乎天主矣. 에서 온 것이다.: 천주성교실록의 내용을 옮긴 이마두의 천주실의의 내용을 보면, 《天主實義上卷》 /94 是故一家止有一長, 一國止有一君, 有二, 則國家亂矣; 一人止有一身, 一身止有一首; 有二, 則怪異甚矣. 吾因是知乾坤之內, 雖有鬼神多品, 獨有一天主始制作天、地、人、物, 而時主宰存安之. 子何疑乎? 《天主實義下卷》 /558 西士曰: 奚啻無益乎, 大害正道. 惟此異端, 愈祭拜尊崇, 罪愈重矣. 一家止有一長, 二之則罪; 一國惟一君, 二之則罪. 라 하였다.

14) 십계명가의 진실성에 대하여, 천진암성지의 역사자료실 114번글을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라. http://www.chonjinam.org/client/form/viw.asp?p_idx=237&cpage=2&Search_code=0&Search_text=

15) 천주의 칭호에 대하여, 천진암성지의 역사자료실 102번에 있는 글을, 다음의 주소에서 참고하라. http://www.chonjinam.org/client/form/viw.asp?p_idx=225&cpage=2&Search_code=0&Search_text= ; 천주실의 상권 / 70 西士曰: 天主之稱, 謂物之原; 如謂有所由生, 則非天主也. 物之有始有終者, 鳥獸草木是也; 有始無終者, 天地鬼神及人之靈魂是也; 天主則無始無終, 而為萬物始焉, 為萬物根柢焉. 無天主則無物矣. 物由天主生, 天主無所由生也. / 429 西士曰: 人之靈魂不拘善惡, 皆不隨身後而滅, 萬國之士信之, 天主正經載之, 餘以數端實理証之矣. 此分善惡之殊, 則不載於經, 不據於理, 未敢以世之重事輕為新說, 而簧鼓滋惑也. 勸善沮惡有賞罰之正道, 奚損此而求他詭遇?

5절.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16)

3-1-2 그 다음의 2단락은 영혼불멸, 불사금지, 천당지옥설의 시비를 노래하고 있다.(하성래, p. 166). 이에 대하여 신학전망 23권 164에서, 이는 깊은 신앙심이 아니면 우러나올 수 없는 표현이며, 간결명료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6절. 이내몸은 죽어져도 영혼남아 무궁하리

7절.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며는 17)

8절.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18)

9절. 천주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마소 19)

16) 이 내용과 관련하여, 천주강생언행기략 4권 18의 자증진주(cf.요한 8, 12s)를 참고하였다고 보는데, 按聖經, 世人常生真福, 一在識天地真主, 欽崇無怠; 一在知降生救贖之恩, 深心感法。二者缺一, 則不得享真福, 而必罹永殃。譬之臣子, 不識敬其君父, 則恩寵無由而受, 反必將蒙不忠之罰。故君責臣以忠, 原非為己之榮, 欲使臣子盡其分, 受其福, 理不容不然也。吾主耶穌萬民之大君父也, 自証其為真主, 無非欲以增人之福, 而免眾人之罪耳。嗚呼! 彼學士之傲且妒, 不能識認真主, 而恪奉之, 其罪寧止不忠孝也哉?; 삼강오륜에 대하여, 천주실의 하권에, 64 平治庸理, 惟竟於一, 故賢聖勸臣以忠。忠也者, 無二之謂也。五倫甲乎君, 君臣為三綱之首, 夫正義之士此明此行。在古昔, 值世之亂, 群雄分爭, 真主未決, 懷義者莫不深察正統所在焉, 則奉身殉之, 罔或輿易也。邦國有主, 天地獨無主乎? 國統以一, 天地有二主乎? 故乾坤之原, 造化之宗, 君子不可不識而仰思焉。 라 하였다.: 천주공경은 恭敬-
天主가 倒置된 용어로 眞道自証에도 여러 번 나온다. 천주성교실록과 천주실의에선 奉敬天主로 표현하고 있다.

17) 靈魂不滅에 대해 천주성교실록 15a에, 論人魂不滅大異禽獸章이라 하며, 19a에서는 靈魂永不滅이라 하였다.: 같은 내용에 대하여 천주실의 상권에, 347 靈魂不滅之理 / 430 惡人靈魂不滅的証明 / 461 中士曰: 籲! 今吾方知人所異於禽獸者, 非幾希也。靈魂不滅之理, 甚正也, 甚明也.

18) 만천유고의 跋文을 쓴 無極觀人은 자신의 신세를 ‘不接木石之身世(勢)’라고 한다. 필자(김학렬)는 이 무극관인을 李寵億(滄溟, 1764-1822, 다산시문집 제10권, 설(說), 종두설(種痘說)에 보면, 1799년에 의주부윤인 아버지 이기양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1800년에 진하부사로 북경에 다녀오는데도 자체군관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만천유고의 각주를 단 사람은 李寵億(滄江, 1776-1837)의 장자로서 이충역의 계자가 된 李宜敬(1801-1891)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이방역의 차자는 김대건 신부의 복사를 하던 李宜敬 베난시오이다.(1804? - 1868?, 김시준역 벽위편 342를 보면, 정희순 <이의창의 처, 약종의 재종손녀(사촌형제의 손녀로 6촌간), 사호 加多尼羅가타리나>이 진술하기를: ‘서양 사람 셋을 친척인 정夏祥의 집에서 만나 보았습니다’고 하였다.)

19) 이는 천주성교실록 32b에서, ‘제1조 要誠心奉敬天主, 不可祭拜別等神像 - 違犯此誠者 不敬天主’를 읽고 표현한 것이다.: 탕약망은 주교연기 3권 24b에서 補儒關佛을 말하고 있다.: 한어대사전에 佛事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3항의 佛像과 菩薩像을 공경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1. 佛家謂諸佛教化眾生之事。
《觀無量壽經》：“頂上肉髻如鉢頭摩花，於肉髻上有一寶瓶，盛諸光明，普現佛事。”
宋蘇軾《十八大阿羅漢贊》之十七：“孰知毛髮，八萬四千，皆作佛事，說法熾然。”
2. 指僧尼等所作誦經祈禱、拜懺禮佛等事。
《金石萃編·北齊臨淮王像碑》：“遂於此所，爰營佛事。”
《宋史·文苑傳四·穆修》：“母死，自負櫬以葬，日誦《孝經》、《喪記》，不飯浮屠為佛事。”
《紅樓夢》第七十回：“話說賈璉自在梨香院伴宿七日夜，天天僧道不斷做佛事。”端木蕻良《科爾

- 10절.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점점 쌓인다네
- 11절. 죄짓고서 두려운자 천주없다 시비마소 20)
- 12절. 아비없는 자식봤나 양지없는 음지있나
- 13절. 임금용안 못보았다 나라백성 아니런가 21)
- 14절. 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사람 시비마소
- 15절. 있는천당 모른선비 천당없다 어이야노

3-1-3 삼 단락은 結詞로서,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이다. 믿어보라고 권유하는 짧은 노래이지만, 據理答之(교리에 근거를 갖고 답하는)한 이벽 성조의 목소리를 듣는듯하다.

- 16절.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 17절. 영원무궁 영광일세. (永遠無窮)

3-2. 김진소 신부는 金眞召, 天主歌辭의 研究, <교회사연구 제 3집>, 1981 한국천주교회사연구회, p. 259에서, 한국천주교회의 토착화 과정에서 생겨난 천주가사의 起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주가사는 이조후기의 대중가사로서, 주로 4.4조의 형식으로 된 천주교 신앙의 가사이다. 대중가사의 형식은 대중 교화의 방법으로 작사되었다. 천주가사의 명칭은 ‘천주교 성가가사’, ‘천주찬가’ 등으로 부르는데, 필자(김진소)는 하성래씨와 함께 이를 ‘천주가사’라고 부른다. 천주가사는 교화나 수도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신앙의 합리성을 명쾌한 논리로 전개하고 있는데, 초기의 가사일수록 초보적인 교리를 觀照하고 있다. 저자의 해박한 교리지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독자를 성화시켜 영생으로 인도해준다. 천주가사는 개인의 신심에서 작사되지만, 그 내용은 비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沁旗草原》十六：“只是在家裏請法師做佛事，超度亡魂早被苦界。”

3.佛土。指佛像，菩薩像。事，通“土”。

北魏楊衒之《洛陽伽藍記·長秋寺》：“莊嚴佛事，悉用金玉，作工之異，難可具陳。”

唐韓愈《陪杜侍御游湘西兩寺獻楊常侍》詩：“路窮臺殿闕，佛事煥且儼。”

20) 천주성교실록의 천주십계장(31b)에서, 天主教人은 정도를 가는 자로서 두 가지를 지키니, 하나는 십계요, 또 하나는 3규이다. 그 가운데 제8계는 毋讒謗是非라 하여, ‘혈뜯고 비방하며 시비하지 말라고 하였다. ‘무참방시비’는 그 내용이 만천유교중 십계명가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천주공경가에서도 역시 이 내용이 참고 되었다고 본다.

21) 하성래는 p.168에서, 평민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비유로 ‘임금용안’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이벽의 확고한 천주존재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같은 설명을 신학전망 23에서, 천주존재의 확신을 임금용안에 비유하였고, 이를 정하상의 상재상서에서는 ‘유복자’에 비유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주가사는 개인의 신앙고백이지만, 모든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에, 참된 저자는 教會이다.(p.267) 현재 전하는 천주가사는 186종에 이르는데(p.269), 도표를 보면, 1)십계명 교회 가. 2) 천주공경가(전망 1973). 3) 선종가 4). 사심판가 5). 공심판가로 이어진다.

p. 260 - 문학형식도 호소, 훈계, 권면, 설명조가 대부분으로, 이런 현상은 불교와 천도교에서 포교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 -가사 자체가 지닌 특유의 감동력과 호소력으로 흡인력이 있고, 또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용한 교수법이다. 일반적으로 평이한 우리말로 작사되었다. - 복음전파 대상이 모든 사람이며, 이는 선교의 본래 입장과 부합한다. -가사들을 소장하고 전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엄숙하리만큼 진지하고, 또 家寶 이상으로 소중히 다루고 있다.

3-3 천진암성지에서는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124위 시복)기념으로, 천주공경가를 등에 새겨 천진암박물관 앞에 세웠는데, 전면에는 만천유고본에 있는 천주공경가 원문을 새겼고, 그 후면에는 다음과 같이 천주공경가가 작사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天主恭敬歌는 우리나라 천주교회 최초의 聖歌다. 1770년부터 1784년까지 천진암성지에 모이던 靑少年들이 李檠 聖祖를 웃어른으로 모시고(爲上), 新學問 연구와 함께 자발적인 진리탐구의 講學이 절정에 오르던 1779년 겨울을 전후하여, 한국천주교회 창립 초기에 이벽 성조께서 지어 부르게 하던 노래로서, 實生活를 比喻로 例示하면서 천주교의 기본 教義를 補儒論的이며 護教論的으로 읊은 福音宣布의 우렁찬 喊聲이었다. 특히 천진암 天學道場의 賢友賢士 道友들의 天學叢林歌로서(其門下如叢林), 같은 시기에 지으신(下筆) 天學 教義 教科書와도 같은 聖教要旨와 더불어, 천주교 신앙의 음이 트고 짝이 돋는 우리나라 교회의 탄생(natalis)을 알리는 呱呱之聲이었다. 歌詞의 내용 외에는 原本과 曲調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천주교회 신도들이 세상 끝 날까지 자자손손 부르며, 우리 신앙선조들의 자발적인 신앙을 지키고 아끼며 가꾸게 하는 신앙의 遺産이다.

2014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 235주년 기념일, 소농 이성숙 글씨, 태원 석재 刻字, 한국천주교회 수원교구장 이용훈 축성, 천진암성지 위원회 立碑.

끝.